

'전주 인후 더샵' 내일 견본주택 오픈

전주비조정지역... 1순위 자격·재당첨제한등 규제에서 제외 교육·교통·편의시설·작주근접에 더샵브랜드프리미엄까지

포스코건설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23-21 일대에 짓는 전주 인후 더샵을 오는 20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 인후 더샵은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 총 478가구다. 전 가구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전용면적별로 59㎡ 107가구, 76㎡A 275가구, 76㎡B 96가구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세대 수가 가장 많은 76㎡ A타입(275가구)은 4베이 판상형 맞붙종 구조로 대형 위크인 드레스룸, 복도 펜트리 현관 양면창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인방에 위치한 대형 드레스룸의 경우 입주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올인원 드레스룸형 또는 파우더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게다가 가족의 소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이닝 라이프러리도 발코니 확장 시 제공한다.

76㎡ B타입(90가구)은 거실(Living Room)과 주방(Kitchen), 다이닝(Dining)이 일렬로 배치된 LDK 구조다. 위크인 드레스룸, 복도 펜트리, 현관 양면창 등 수납공간 확보로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76㎡ 모든 가구에는 공통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입식세탁물 등을 확보한 스마트 다용도실이 설치된다. 59㎡(107가구)는 3베이 판상형 구조

로 맞붙종이 가능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하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2차 주방으로 시공해 공간활용도를 높였으며 거실 역시 우물천장으로 설계해 넓은 공간감도 확보했다. 또한 작은방에 있는 불박이장(웍션)은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서랍형 또는 파우더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스포츠존과 단지 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시설이 갖춰진 퍼블릭존, 독서와 친목도모의 공간인 에듀존으로 나뉜다.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남녀 시크릿 샤워룸이 있으며 퍼블릭존에는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보육시설 및 경로당이 들어선다. 에듀존에는 남녀노소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과 키즈룸이 있어 자녀를 키즈룸에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도 가능하다. 전주 인후 더샵은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홈플러스 모래내시장, 전주시청, 덕진구청, 전북대학병원, 전주고려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여기에 도보 10분 이내에 인후초, 이중중, 전주여고 등이 있으며, 전주교, 전주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등도 가깝다. 또한, 전주사립도서관, 전주 임글리쉬 센터도 단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한다.



포스코 건설의 전주 인후 더샵 투시도

교통여건도 주목할 만 하다. 단지 주변 동부대로, 안덕원로 등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권역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전주 제1~2신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신입단지 등이 차량으로 20분 내의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동진JC,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도당산, 건지산, 소양천 덕진체련공원 등 쾌적한 녹지공간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분양 관계자는 "전주 인후 더샵이 들어서면 덕진구 인후동은 2009년 이후 신규 공급이 전무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라 새 아파트 분양소식에 인근을 중심으로 문의전화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전주시 내에서 전주 에코시티 더샵 1~3

차, 효자 더샵 1~2차 등 더샵 아파트가 연이어 분양에 성공하면서 이번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 조기 완판(완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1순위 자격과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전주 인후 더샵 청약일정은 7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를 진행한다. 8월 1일 당첨자 발표 후 8월 13일~16일 3일간 정당 계약을 받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7-24(131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NH농협은행 '골드바' 구매고객 이벤트 실시

프로모션 기간 중 구매고객 대상 금수저 실버바 증정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농협은행 전 지역에서 전라북도 성인 누구나 골드바(Gold Bar)를 손쉽게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골드바서비스'와 함께 12월 31일까지 '구매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골드바 서비스'는 순도 99.99%의 실물 형태의 금을 (주)한국의금거래소 쓰리엠과 (주)삼성금거래소를 대항하여 농협은행이 판매, 판매종류는 10g, 100g, 1kg, 10돈(37.5g), 50돈(187.5g), 100돈(375g)으로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골드바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업체 협찬 프로모션으로 (주)한국의금거래소 리미에서는 골드바 1kg 구입시 1g의 금수저를 제공 (주)삼성금거래소에서 375g 골드바 구입시 100g

의 실버바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구매한 골드바는 5영업일 이내로 지정된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수령이 가능, 수령요청 문자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구매한 골드바에 한해 재판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실시간 변동되는 골드바 가격조회 서비스와 함께 연도별 금 시세 추이, 금 투자 포인트 등을 안내하는 골드바 투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전북 마케팅추진단 국형욱 차장 063-240-3245 전북농협 홍보 하양진 실장 063-240-3071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진안정천우체국 '도내 최초 명품 인증'

전북우정청, 인증 현판식·표창패 수여

진안 정천우체국이 전북 최초로 2018 전북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 및 표창패를 받았다.

17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진안정천우체국에서는 전북지방우정청장 김성철,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의회위원장 신갑수, 진안우체국장 이계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북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 및 진안(정천우체국장 박주홍)에게 표창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최초 명품우체국'은 전북지방우정청의 우체국 혁신경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15개 총괄우체국장이 추천한 우체국을 대상 전북지방우정청에서 고객 설문조사, 현지실사, 공적심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품 1국(진안, 정천) 으뜸 2국(군산조촌동, 김제, 봉남) 버금 2국(익산, 황등, 부안 위도) 등 5국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전북 명품우체국의 영예를 받은 '진안정천우체국'은 '자연친화적 화단 정원을 조성, 우체국 이용객 주민들에게 샴터를 제공, 우체국 창구에 미술작품을 전시, 피아노 비치 등 특색있는 카페형 공중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작은마



를 우체국 음악회 및 편지쓰기 행사 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진안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저소득 청소년 대상 도서지원, 진안 고원길 걷기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우체국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이항로 진안군수는 "진안에 있는 우체국이 전북 최초 명품우체국으로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하반기 명품 1국, 으뜸 2국, 버금 2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 충남농협,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 업무교류

전북농협 전북본부는 18일 충남농협 임직원들이 전북의 우수경제사업장 견학, 경제사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충남농협과 농업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업무교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지난 5월 처음 시작 농협 지역본부간 업무교류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교류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교류는 전북농협의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본부간 아이디어 공유와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은 전북과 인접해 있으며, 행정의 농업정책에서도 전북의 '삼락농정'과 충남의 '3농혁신'은 비슷

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전북농협과 충남농협은 서로간의 우수 추진사항을 공유, 각자의 지역에 접목하기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북과 충남은 '同舟共濟(동주공제)'와 '樂此不疲(요차불피)'의 마음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극복,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전북농협 본부장 유재도는 "전북농협은 다른 지역본부들과의 교류도 확대해서 전북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한진 전북본부, 재활용품 기부로 나눔 문화 확산

한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는 지난 17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함께 하는 사람들과 재활용품을 수거해 기부하는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사회적 기업인 (유)함께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가정에 잡자고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제3세계 국가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한진은 이 단체와 지난 6월 '사랑의 재활용품 기부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행사는 한진 본부 직할 전 직원·검침사·고객센터·KDN(한진정보 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1주일간 수거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운동화, 가방·침구류 및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수거하여 사회적 기업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진 전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여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제 2018-다-37호 (심의일자: 2018. 1. 30 현재)